백만원력결집불사 괄목할 성과…원력 모여 결실로

신년기자회견문으로 본 36대 집행부 성과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임인년, 36대 집행부 마지막 해
주요종책사업 등 지난 4년 회고
"위기 기회로 만들기 위한 여정"
대사회 화두 던진 전국승려대회
국민 지지 · 공감 확보 이어갈 것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발표한 신년기자회견문에는 올해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제36대 집행부의 지난 4년간의 여적과 성과들이 고스란히 담겼다. 원행 스님은 "종교위기의 시대, 한국불교도 예외는 아니다"며 "총무원장 취임 후 현재까지 약 4년여의 시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 토대를 만들어 가는 여정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스님은 백만원력결집불사는 감동과 정성의 결집이었다고 회고했다. 무엇보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백만원력 저금통을 들고 온 어린아이의 마음과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노 보살님의 손에 쥐어진 저금통은 한국불교의 새로운 희망이었고, 감동이었다"고 전했다.

실제 백만원력결집불사는 36대 집행부의 주요종책사업으로 2019년 선포된 이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불자들의 원력이 하나하나 모여 결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인도 부다가야에 종단에서 건립하는 한국 최초의 사찰로 기록될 분황사는 2021년 12월에 대웅전 상량식을 봉행한 데 이어, 올 5월경 완공과 함께 점안법회가 봉행될 예정이다. 육해공군본부 계룡대에 건립되는 호국홍제사는 국군불교 전법과 포교의 중심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한 불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6월이면 완공된다. 우리나라의 행정수도 기능을 하고 있는 세종시에 건립 중인 한국불교문화체험관과 광제사도 올 9월경 준공식을 거행한다. 한국불교문화체험관과 광제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양평에 건립 예정인 문화재



백만원력결집불사는 36대 집행부의 주요종책사업으로 2019년 선포된 이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연구시설 불사도 올 3월 착공식에 이어 2023년 상량식,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조계종 숙원사업이었던 불교요양원 건립불사도 가시화되고 있다. 스님들의 고령화에 대비하고, 평생을 수행과 포교를 위해 전념한 사부대중이 편안하게 치료받고 요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요양원은 지난해 2021년 12월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하는 등 물적 토대를 마련한 상태다.

난항을 겪었던 10.27 법난 명예회복 기념관 건립사업은 현재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타당성 조사가 완료됐고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가 확정되는 등 다시 안정적인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2020년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것도 손꼽히는 성과이며, 전통문화 체험 문화를 완전히 안착시킨 템플스테이 역시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원행 스님은 "살아 숨 쉬는 전통불교문화가 온전히 보전 · 계승되어 국민과 함께 세계인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필두로 우리사회 각처의 소외된 약자와 함께해 온 세월도 10년을 맞았다. 원행 스님은 "사노위 10년을 계기로,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함께하며 생명의 존귀함과 평등을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36대 집행부의 주요 종책과제 중 하나였던 전통사찰 규제개선도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종단은 2019년 불교관련 국가법령 제 · 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불교 관련 규제 법령 개선안 마련과 규제 철폐를 위해 고심해 왔다.

그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유사찰의 토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이끌었고, 사찰 경내에서 발견된 성보의 소유권 판정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매장문화재 관련 지침' 도 개선했다.

현재 '재난안전법' '건축법' '매장문화재법' '문화재보호법' 을 비롯해 '조세특례제한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산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통사찰 수행환경 보호 및 자연 · 문화유산 보존에 적지 않은 도움을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21세기 대장경으로 칭해지는 '불교성전' 발간, 갈등을 화쟁으로 승화시킨 '종단화합대법회' 봉행, 승려복지 체제 확립을 위한 본인기본부담금 제도의 안착 등도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원행 스님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월 21일 봉행한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화를 위한 전국승려대회' 와 관련한 입장도 전했다. 스님은 "여러 우려에도 5000여 스님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편향과 차별이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기에, 이를 공론의 장에 드러내고 근절을 위한 사회적 합의 토대를 만들기 위함이었다"며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36대 총무원은 올해로 끝나지만 대한불교조계종은 또 다른 시작"이라며 "살아왔던 지난날들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종단의 앞날에 미력하나마 마중물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언제나 국민과 불자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동국대 경주캠 '와이즈캠퍼스'로 명칭 변경

학교법인 동국대, 8일 이사회서 보고 받아

대학 발전 위한 혁신 의지 담아
행정 절차 후 2023년부터 사용
10개 대학서 6개 대학으로 개편
동국대 서울, 한국음악학과 신설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명칭을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로 변경한다. 1979년 '동국대 경주대학' 으로 개교 이래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성우)는 2월 8일 본교 로터스홀에서 제342회 이사회를 열고 경주캠퍼스 명칭 변경 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

보고에 따르면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와이즈(WISE)캠퍼스' 로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는 대학 브랜드 구축을 위해 캠퍼스 특성과 미래 발전 가능성을 반영한 새로운 명칭이 필요해서다. 이미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지방캠퍼스 명칭을 새롭게 변경하고 있다. 고려대 조치원캠퍼스는 세종캠퍼스로, 한양대 안산캠퍼스는 에리카캠퍼스로, 건국대 충주캠퍼스는 글로벌캠퍼스로,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미래캠퍼스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명칭 변경을 위해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지난해 3월 사업 계획안을 수립하고 네이밍 전문 업체와 체결하고 공모를 진행했으며, 2차례 선호도 조사를 거쳐 명칭 변경안을 수립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새로운 명칭인 '와이즈(WISE)' 는 '지혜' 라는 의미며, 'Wise Innovation, Smart Evolution(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혁신하고, 스마트하게 융합해 발전하는 캠퍼스)' 이라는 의미도 담겼다.

이홍천 동국대 경주캠퍼스 비서실장은 "캠퍼스 명칭 변경은 지방 캠퍼스가 경쟁력을 갖춰 확실하게 혁신하겠다는


학교법인 동국대는 2월 8일 이사회를 개최했다.

각오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새로운 명칭인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는 건학이념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과 발전을 이뤄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새로운 명칭 변경 계획 보고에 대해 이사회에서 큰 이견이 없었던 만큼 명칭 변경은 기정 사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사회서 의결되면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는 변경된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치로 학제 개편도 이뤄진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학과 · 대학의 신설과 폐지 및 학생정원 조정' 에 대한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기존 10개 단과대학에서 6개 단과대학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미래 산업형 다학제적 학문편제로 개편을 위한 것" 이라며 "특히 스마트시티융합대학은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내년부터 서울캠퍼스 예술대학에 한국음악과를 신설해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했다. 교육과정은 성악, 기악, 무용, 작곡 등이며 입학정원은 15명이다. 한국음악과 신설에 따른 입학정원은 법과대학 법학과 학생 수를 감원키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 앞서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돈관 스님과 우송 스님은 법인 발전기금 50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신성민 기자

오대산 사고본 실록 · 의궤 환수 '청신호'

국회 문체위 결의안 만장일치 의결

조선왕조실록 · 의궤 오대산 사고본(이하 오대산 사고본)을 월정사로 환지본처하기 위한 여야 결의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대산 사고본 환지본처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월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오대산사고본 제자리찾기 촉구 결의안(이광재 의원 등 63인)' · '오대산 사고본 환지본처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이채익 의원 등 31인)' 을 병합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두 결의안의 병합에 따라 오대산 사고본의 환지본처와 이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을 촉구하는 것으로 결의안이 정리됐다. 현재 월정사 일주문 입구에는 왕조실록 · 의궤박물관이 설립된 상태로, 향후 월정사가 국가에 해당 박물관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현모 문화재청장도 국회 답변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청장은 "오대산 사고본이 월정사로 갔을 때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입장 변화가 있었다"며 "국회 결의가 이뤄지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월정사는 결의안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내놨다. 월정사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의 결의안이 병합돼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오대산 사고본 환지본처에 국회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회 본회의에서 병합된 결의안이 통과돼도 오대산 사고본의 환지본처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다"면서 "특히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의 협의도 필요하다. 정부부처의 협의 과정에서도 국회가 지속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농선 대원 선사의
대방광불화엄경 81권
완역본 출간기념
할인 판매

수덕사 만공선사 법맥과 대각사 용성선사 강맥을 한 몸에 받은 혜안으로 전등록 30권과 선문염송 30권을 역해하고 1,463칙 전 공안에 착어를 하신 바 있는 불조정맥 제78대 농선 대원 선사께서 81권 화엄경과 화엄경의 이해를 돕는 각 품의 요점을 요약한 소책자까지 드디어 출간 완료하였습니다.

불교 경전의 정수에 해당하는 화엄경 81권 완역 출간을 기념하여 81권 세트 121만원을 할인된 금액으로 100만원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300부 한정, 선착순 주문 받습니다.
차후로는 지면을 통한 화엄경 추가 출간 계획이 없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문젠 010-3880-8980





